

2000 여성 환경활동가 전국연수 기초강연 보완

21세기 환경문제와 여성의 힘

박영숙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소장/여성환경연대 60대 으뜸지기

1. 들어가는 말

1999년 6월 23일 여성환경연대의 창립 당시 신문기사를 읽은 한 남성으로부터 애정어린 <항변>을 들은 바 있다. 여성환경인들만의 결속은 <남성역차별>이라는 것이었다. 이 남성은 우리나라의 환경운동을 잘 알고 있는 편에 속하는 사람이다.

여성환경연대에 대한 항변의 요지는 오늘날 국내외적으로 환경보전활동은 여성이 압도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들만의 결속은 남성에 대한 역차별의 요인이 있다는 지적이다.

여성운동은 있는데 왜 남성운동은 없는가? 또는 여성사는 있는데 왜 남성사는 없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듣고 있다. 그러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의 의식속에는 하나의 전제가 빠져 있다. 지금까지의 인류 또는 인간이라는 이름으로 되어진 것에 여성은 들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인간의 역사는 남성사로 되어 있다. 그 근거를 역사라는 영어 단어 <History>에서 찾아 볼 수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역사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교육, 종교 등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학에서는 이것을 '불가시성'이라고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에 넣을 수 있는 여성사 또는 여성문제 등의 여성관련 서적들은 한결같이 여성의 불가시성을 전제로 한 남성중심사회에 대한 분석, 해석, 또는 기록이라고 간주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떠한가? 사회구성원의 반 이상은 여성이다. 모든 남녀는 여성에게서 태어난다. 남녀가 가정을 인생의 기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얼마전 어떤 국제회의에서 오늘의 시장원리에 함몰되어서 인간차별에 무신경해진 자국의 민주주의의 잘못되어가는 것을 반성하기 위해 연출된 이벤트에서 흑인노예해방가인 여성선각자 씨저너 트루스(Sojourner Truth 1797-1883)의 입을 통해 코믹하지만 메시지가 담긴 재담을 들은 바 있다. 그것은 오랜 역사를 통해 인류에게서 가장 신봉받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도 남성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말이었다.

일본의 여성운동 이론가인 우에노 지즈코 교수가 1986년 펴낸 <여성이 세계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책에서 "남성이 할 수 있는 일은 여성도 할 수 있다". "남자가 구하지 못하는 세상은 여성도 구할 수 없다" "여성은 남성이상도 이하도 아닌 동일한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유엔은 리우+10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준비를 위해 각국에 <국가준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게 그 기능을 맡기고 그 산하에 다양한 대책반을 두어 그 운영과 추진과정에 관계부처와 민간기구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그 준비에 들어갔다.

이 밖에도 지방자치단체준비위원회, 산업계준비위원회, NGO 또는 NPO준비위원회 등이 구성되었거나 구성 단계에 있다. 1년여를 앞두고 있는 Rio+10 준비에 각계가 힘쓰고 있다. 여성환경인의 준비위원회도 별도로 조직하여 독자적인 회의 참가준비를 할 뿐만아니라 타 기구들과 협력도 해야 한다.

환경부와 국가준비위원회에서는 회의준비의 일환으로 유엔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92 지구정상회의 이후 경제사회, 환경부문 등에서의 지속가능발전추진성과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한편 국내대책으로는 리우+10을 기해 지속가능발전개념의 정책적용 확대와 획기적인 인식제고의 계기가 되도록 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 개념이란 경제적 활력, 환경의 질과 사회적 형평성의 상호관련속에서 이루어지는 통합체로서 인간이 필요로 하는 질 높은 삶의 조건을 현세대만이 아닌 미래세대에게까지 유지되게 하는 것이다. 미국의 PCSD가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면서 고용, 생산성, 임금, 저축, 이윤, 정보, 지식과 교육의 성장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오염, 폐기물, 빈곤 등을 감축하는 노력을 함께 하는 것이 통합접근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금번 기회에 우리나라에서의 지속가능발전개념이 극히 부분적인 환경관련 업무에만 한정, 적용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되고 있었던 점이 시정되기를 바란다.

제1차 준비회의 보고에 의하면 WSSD 2002 참가준비는 일찍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다. '92 리우에서와는 달리 NGO들의 참가범위와 양식이 달라지면서 특히 참가신청을 서둘러야 한다는 점에 NGO들은 유의해야 한다.

III-2. NGO지구포럼 2002(South Africa NGO Forum)

WSSD 2002의 공식회의는 '92 지구정상회의와 마찬가지로 NGO지구포럼과 쌍벽을 이루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관행이 UNCED 이후 각급 세계정상회담에서 뿌리내린 것은 지속가능발전성의 추진과 실천에 있어서의 시민사회의 역할의 중요성을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인정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92 NGO지구포럼에서는 공개적인 논의를 거쳐 독자적인 지구헌장과 국제지구협약(NGO 의제21) 등을 제정한 바 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공식회의의 '리우선언'과 의제21제정에 영향을 미쳤으며 국제기구의 개혁과 강화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초기의 환경운동이 주로 국내문제에 관심하든데서 벗어나 국제적인 환경가버넌스에 역동적인 정치력을 발휘하기에 이른 것도 그때부터라고 본다.

2002 NGO지구포럼준비는 WSSD 2002의 주최국인 남아프리카의 NGO들이 자임하고 나

서 일찍부터 그 준비에 들어갔다. 그들은 이미 관련 기관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질문서를 발송하는 것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① '92 UNCED의 국제적 약속이었던 환경정의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지역적, 국가적, 권역적 그리고 지구적인 실천성과와 효율성을 시민사회는 어떻게 검토할 것인가? ② 시민사회는 어떻게 WSSD 준비과정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 할 것인가? ③ 지구적인 준비과정에 시민사회의 의미있는 참여를 이루어 내는데 필요한 매커니즘은 무엇인가, 어떤 NGO구조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가? ④ 어떻게 시민사회 조직이 WSSD를 활용해서 사회운동을 강화하고 지구협약의 실천을 이루어내는 통합적인 연대를 이루어 낼 수 있는가? ⑤ 2002년 지구정상회의와 그 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지구적 연대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등이다.

금년 2월에 UNEP는 나이로비에서 NGO 협의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그 회의에서 발표한 WSSD에 관한 결의문에서 보면, 이 회의는 UNEP에게 2002NGO지구포럼의 조직운영 지원, 정보제공, 국가 및 권역의 시민사회의 준비과정 지원, 그리고 9개의 주요 그룹, 특히 소외된 계층의 적극적인 활동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코펜하겐에서 열린 Rio+8 포럼에서는 세계 50개국의 70개 NGO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주제들로 빈곤, 기후변화, 식량, 물, 산림, 거버넌스와 제도 등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고 했다.

WSSD 2002에서의 NGO지구포럼의 준비는 회의 주최국인 남아프리카의 NGO들이 그 책임을 자임하고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므로써 2000년 1월부터 활동 개시를 했다. 그들은 이미 관련 기관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보내는 것으로 일을 시작했다. ① 어떻게 시민사회는 1992년도의 UNCED의 국제적 약속이었던 환경정의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지역적, 국가적, 권역적 그리고 지구적인 실천성과와 효율성을 검토할 것인가? ② 시민사회의 WSSD 준비과정에서 어떻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 할 것인가? ③ 지구적인 준비과정에 시민사회의 의미있는 참여를 이루어 내는데 필요한 매커니즘은 무엇인가, 어떤 NGO구조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가? ④ 어떻게 시민사회 조직이 WSSD를 활용해서 사회운동을 강화하고 지구협약의 실천을 이루어내는 통합적인 연대를 이루어 낼 수 있는가? ⑤ 어떻게 2002년 지구정상회의와 그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지구적 연대를 만들 수 있는가? 등이다.

뉴욕에서 열린 제10차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개최시 4월 30일에는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대화모임을 가지고 2002 NGO 지구포럼에 관한 논의를 한 바 있다. 참가자들은 '92지구정상회의의 중요한 산물인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단순히 공해문제, 생물다양성 감소, 자연자원의 관리 등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개발과 저개발, 부와 빈곤, 풍요함과 결핍, 안전과 형평, 정의 등의 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서 2002 NGO지구포럼이 강조하고 있는 과제들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면서 악화일로에 있는 지구환경문제 개선을 위해 지구시민 모두가 즉각 행동에 들어갈 것을 금번 WSSD에서 결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이 논의한 것은 빈곤과 파소비의 문제로서 동전의 양면에 해당하는 이 두 문제가 잘 풀리지 않고서 지구환경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이 또한 강조한 것은 WSSD 2002는 '92 지구정상회의와는 달리 진정한 의미의 파트너십이 이루어지는 개방적인 회의가 되어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은 결의를 하고 있다. ① 세계지구정상회의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한다 ② 각 나라의 다양한 시민사회가 회의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참여하도록 한다 ③ 시민사회의 각계각층의 참여를 독려하되 힘이 약한 농민, 여성, 토착민에게 특히 기회를 주도록 한다 ④ 2002 이후의 지구환경개선을 위한 행동계획 추진계획을 지금 만든다. ⑤ WSSD 주최국으로서의 남아프리카 정부의 역할을 NGO들이 함께 한다 ⑥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지방, 국가, 지구촌의 보통사람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의 능력을 배양하는데 힘쓴다 ⑦ 정부의 지속가능 발전과의제 21추진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하도록 한다 이다.

남아프리카의 NGO들이 주최국으로서 부여된 기회와 책임을 위해 일찍부터 대활약하고 있는 것에 발맞추어 우리나라 NGO들도 일찍부터 준비해야 한다. 회의에 참석하는데 끝일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구환경문제 그리고 그 해결책에 대한 견해를 펼치므로 회의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야 한다.

III-3. 2002 WSSD와 여성

세계환경여성기구(WEDO)는 1991년 11월 미국의 마이애미에서 '92리우회의에 대비한 '건강한우주를위한 세계여성대회'를 개최하고 <여성행동강령-Women's Action Agenda 21>을 제정하여 지구정상회의에 제출한 것과 마찬가지로 2002 WSSD에 앞서 여성대회를 개최하고 세계 여성환경인들의 집단적인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비 우리나라 여성환경인들이 수행해야 할 과제는 다양하고 과제의 우선순위결정에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 조정은 적절한 합의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기본적인 과제들을 예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① 현재 우리나라 국가준비위원회가 추진중인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수정작업과 그동안의 이행성과평가작업에 적극 참여 ② 유엔의 준비회의, NGO지구포럼 준비회의, 권역별 회의를 비롯, 국내 각종 준비회의에 참여 ③ 주변 국가와의 쌍방 또는 다자간의 연대회의(한일, 한중, 또는 한중일 등) 등을 통해 지역환경점검 및 대 국제 지역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일에 참여 ④ 회의 참가 예정자 모집 및 훈련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회의참가의 효율을 제고하는 일 ⑤ 가능하면 동일인이 준비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대책 강구 ⑥ '92 지구정상회의에서 누락된 의제와 10년간의 상황변화로 필요한 새로운 의제 개발(NGO의제21, WEDO의 여성행동계획 참조) ⑦ 한국여성환경인의 라운드테이블 토론회 준비 ⑧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지구환경을 위한 실천모델 개발 ⑨ 요하네스버그 회의장에 전시장(Booth) 준비 ⑩ 언론매체들을 통한 여성환경인의 지속가능발전 개념 확산 노력 등이다.

남아프리카의 NGO들이 세계지구정상회의를 통해 성취하고자하는 내용을 참고한다면 ① 아프리카 또는 남측(저개발국가들)은 지속가능발전의 비전으로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중심과제로 강조하면서 새로운 인간적, 여성적 그리고 경제적 가치를 분명하게 하는 일 ② '92년 UNCED에서 결의한 절차와 협약들 그리고 프로그램들을 남북간에 적절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일 ③ 발전과정에 민초들의 목소리가 들리게 하는 일 ④ 지구정상회의의 의제에 빈곤과 환경정의 문제가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다. (빈곤문제는 2002 WSSD 주제로 채택됨)

여성환경인들이 우리나라의 특수성과 여성들의 특별 관심사 또는 의제에 새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논의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문제는 어떠한 '준거틀'과 기준을 바탕으로 할 것인가 이다.

서울대의 김귀곤교수는 '그 준거틀과 기준은 1992년 리우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원칙에 바탕을 두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가 서구에서 개발된 이론과 접근방법에 너무 편도되어 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앞으로의 새로운 10년을 위한 시행전략과 매커니즘은 동양적 철학과 가치에 의한 지속가능발전 원칙에 근거할 필요가 있다'고 한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1.2.15~16, 한·일 지방의제21워크샵-서울)

금번 지구정상회의에서는 새로운 의제들을 재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의제들의 구체적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 모색에 역점을 둘 것으로 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여성준비위원회가 중시해야 할 것은 실천을 위한 사례 개발이다.

IV. 여성과 의제21

오늘의 환경문제의 화두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다. 대다수의 선진국들이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기구 및 연구기관 설치, 정책 개발 등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국제적으로는 크고 작은 회의들을 빈번하게 개최하고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도출해 내기 위해 다양한 협약들을 양산해 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환경은 개선의 징조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우려된다.

'97년도 미국의 월드워치연구소의 <지구환경보고서>에서는 그 원인을 21세기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행동계획인 <의제21>의 추진실패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같은 해 6월에 개최된 리우+5인 유엔환경특별총회에서 세계여성환경기구(WEDO) 회원들이 외친 구호가 바로 '실천-Action'이었다. 의제21의 실패의 원인은 다름아닌 실천이 없는데서 생긴 결과이기 때문이다.

IV-1. 유엔 의제21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을 위한 21세기 행동강령인 <의제21>은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정원식 국무총리 참가) 179개국의 국가정상들이 합의, 채택한 것이다.

의제21은 제1부 사회경제부문, 제2부 자원의 보전 및 관리, 제3부 주요 집단의 역할 강화, 그리고 제4부 이행수단 등 4개 부문의 총 4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의제21의 구성]

부 문	각 장의 내용
전문	1. 전문
I. 사회·경제부문	2.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개발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 3. 빈곤 퇴치 4. 소비패턴의 전환 5. 인구통태의 지속가능성 6. 인간보건 증진 7. 지속가능한 인간 정주 8. 의사결정에 있어서 환경과 개발의 통합
II. 자원의 보전·관리	9. 대기보전 10. 토지 자원의 계획·관리 11. 산림황폐 방지 12. 사막화 13. 지속가능한 산지 개발 14. 농업 및 농촌 15. 생물다양성 보전 16. 생명공학의 환경안전 관리 17. 해양 및 해양생물 자원 18. 담수자원 19. 유해화학물질 20. 유해폐기물의 불법 교역 방지와 환경안전 관리 21. 고형 및 하수 폐기물 22. 방사능 폐기물
III. 주요 그룹의 역할 강화	23. 전문 24. 여성 25. 청소년 26. 원주민 27. 민간단체 28. 지방 정부 29. 노동조합 30. 산업계 31. 과학기술계 32. 농민
IV. 이행수단	33. 재원과 재정체계 34. 기술이전 35.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과학 36. 교육, 홍보 및 훈련 37. 능력배양을 위한 국가메커니즘과 국제협력 38. 국제제도 장치 39. 국제법적 장치체계 40. 의사결정과정에 필요한 정보

의제21은 사회가치 체계의 변화,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와 절차의 개혁 등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동시에 분야별로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각 국가 및 국제기구에 의무로 이행토록 하는 직접적인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UNCED에서 채택된 리우선언과 의제21은 개별 국제협약은 물론 향후 전개될 무역-환경 문제등 환경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며, 모든 환경관련 협상은 이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의제21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되어야 한다.(환경부 PCSD 제출자료 2000. 11)

IV-2. 우리나라 국가의제21

우리나라 국가의제21인 <유엔환경개발회의 의제21 국가실천계획>은 우리 정부가 국가별 의제21의 수립을 권장하고 있는 UN 의제21 제37장에 의거 '94년 4월 지구환경관계 장관회의에서 작성하기로 결의하고 '96년 3월에 수립 완료하여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같은 해 10월에 유엔에 제출한 바 있다. 이 국가실천계획은 현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2002년의 리우+10회의에 대비 재조정중이다. 종전의 국가실천계획이 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점을 감안, 조정작업에는 산업계와 시민사회의 참여가 중시되고 있다. 의제21의 집행을 위한 각장별 소관부처와 주제는 다음과 같다.

각 장별 소관부처 및 주제

「의제21」 장별 주제	소관부처(협조부처)	연구기관
I.전문(제1장)		
II.제1부 : 사회·경제부문 제2장 :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개발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 제3장 : 빈곤퇴치 제4장 : 소비행태의 전환 제5장 : 동태적 인구문제와 지속가능성 제6장 : 인간보건의 보호 증진 제7장 : 지속가능한 인간 정주 개발증진 제8장 : 의사결정에 있어서 환경과 개발의 통합	재정경제원 재정경제원(외무부) 보건복지부 재정경제원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KIEP KIEP, 외교안보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KDI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국토연구원 KDI
II. 자원의 보전 및 관리 제9장 : 대기보전 제10장 : 토지 자원의 통합적 계획 및 관리 제11장 : 산림황폐방지 제12장 : 사막화 및 한발퇴치 제14장 : 지속가능한 농업 및 농촌 개발 제15장 : 생물다양성 보전 제16장 : 생명공학의 환경안전 관리 제17장 : 해양 및 해양생물 자원보호 제18장 : 담수자원의 질과 공급보호 제19장 : 유해화학물질의 환경안전관리 제20장 : 유해폐기물의 불법교역방지와 환경안전관리 제21장 : 고형 및 하수 폐기물의 환경안전관리 제22장 : 방사능 폐기물의 환경안전관리	환경부(통상산업부) 건설교통부 산림청 외무부(산림청) 농림수산부 환경부(과기부) 과학기술부 과학기술부 (환경부, 수산청) 환경부, 건설교통부 환경부(보건복지부) 환경부 환경부 과학기술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 임업연구원 외교안보연구원, 임업연구 원 농촌경제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유전공학연구소 유전공학연구소 해양연구소 국토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자력연구소
III. 주요 그룹의 역할 강화 제23장 : 전문(Preamble) 제24장 : 지속적 균형발전을 향한 여성활동 제25장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아동과 청소년의 역할 제26장 : 원주민과 원주민 공동체 역할의 인식강화 제27장 : 민간단체의 역할 강화 제28장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제29장 :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역할 강화 제30장 : 산업계 제31장 : 과학기술계 제32장 : 농민의 역할 강화	재정경제원 여성부 문화관광부 외무부 환경부 행정자치부 노동부 통상산업부 과학기술부 농림수산부	KIEP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외교안보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행정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산업연구원 KIST 농촌경제연구원
IV. 이행수단 제33장 : 재원과 재정체제 제34장 : 기술이전 제35장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과학 제36장 : 교육, 홍보 및 훈련 제37장 : 지속가능한 개발능력 확충을 위한 국내 체제와 국제협력 제38장 : 지구환경보전 국제체제와 장치 제39장 : 국제법적 장치 및 체제 제40장 :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재정경제원 과학기술부(환경부) 과학기술부(기술협력2과) 환경부(민간협력과) 환경부(지구환경과) 외교통상부(환경협력과) 외교통상부(환경협력과) 환경부(지구환경과)	KIEP KIST

IV-3. 지방의제21

유엔의제21의 제28장에서 의제21에 제시된 대부분의 문제들의 해결이 지역사회의 활동에서 비롯되고 있어서 지역사회 구성원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중시하고 지방정부들로 하여금 지역사회 구성원과 함께 지방의제21을 수립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의제21> 수립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자체 수는 2000년 6월 현재 248개 지자체중 177개인데 그 가운데 부산광역시를 필두로 한 130개는 수립완료하였고, 47개는 수립중에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지난 6월 16일에는 기초 및 광역지자체간의 협력, 정보교환 및 의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방의제21추진전국협의회>가 구성되었다.

세계의 지방의제21의 수립현황을 보면, '91년 국제지방의제21추진협의회(ICLEI)에 의해 시작된 지방의제21의 운동은 '92년 지구정상회의에서 의제21의 제28장으로 채택된 이래 2000년 6월 현재 73개국의 3,000여 지방자치단체에 수립되어 있으며, 지난 6월 28일~7월 2일에 걸쳐 독일의 Sachsen-Anhalt에서 창립 10주년 기념을 겸한 Global Cities 21 회의가 개최된바 있다.

이 회의는 ICLEI가 지방정부대표, 국제기구대표, NGO 대표 등을 초청하고 지난 10년간의 지방정부의 성과를 자축하며 서로의 경험과 연대활동을 통해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미래의 도전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한다.

2001년 5월초에는 하와이에서 WSSD 2002를 대비 ICLEI 회의가 열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지자체 및 지방의제21추진전국협의회에서 대표들이 참가한 바 있다.

ICLEI는 지방정부의 연합체이며 활동내용은 지방정부들로 하여금 지구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의제21 실천운동을 세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서울과 안산 등 여러 지자체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다.

환경친화적인 생명공동체 건설을 꿈꾸며 세계 곳곳의 지역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의제21이 성숙한 시민사회 건설을 위한 하나의 좋은 수단과 모델도 되고 있어서 세계는 주목하고 있으며 21세기 환경문제에 적극 대처하기로 하고 있는 여성환경연대가 지방의제21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IV-4. 여성의제21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92 환경과 개발회의를 앞두고 1991년 11월 8일~12일까지 미국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에서 세계 83개국으로부터 모인 1,500명의 여성들이 '전천한 우주를 위한 세계여성대회'가 WEDO의 주최로 개최되었다.

이 대회는 유엔기구, 정부, 환경운동단체, 종교단체, 지역사회운동체, 대학, 재단 및 언론계로부터 활동가를 비롯한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 대회에서의 가장

중요한 결과물은 여성의제21인 <건강한 우주를 위한 여성들의 행동계획>이다. 대회에서의 핵심역할은 5명의 판사로 구성된 심판위원회에서 이루어졌다. 여기에 참석한 지구의 각 권역의 대표들이 황폐화된 생태계와 피폐해진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운동을 전개하면서 겪은 처참한 현상에 대해 생생한 증언을 하게 되었고 이 계기를 통해 회의의 열기는 충천했다고 한다.

참가자들이 대표들의 증언에 그들 자신의 경험을 투영시켜 지구환경문제의 심각성을 본질적으로 부각시킴으로 여성의 행동계획이 만들어졌다.

만들어진 여성의제21은 '92 UNCED에서의 여성의 적극적이고 평등한 참여를 침부 요구하면서 UNCED의 사무총장을 통해 제4차준비회의에 제출되었고 리우에서는 <진리의 장막-Truth Tent>를 설치하고 지구정상회의에 도전하기도 했다. 여성활동가들이 회의기간내내 공식회의장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며 여성들의 주장을 외치고 있었던 장면이 아직도 생생하다.

여성의제21이 세계 환경인들의 주목을 끄는 이유는 경제력이 있는 부한 나라들의 정부가 리우회의의 의제로서 거부하고 있는 빈곤문제, 식량문제, 인구문제, 자원낭비문제, 군사주의 문제, 빈국들의 외채문제, 다국적 기업의 문제, 그리고 자유무역문제 등의 핵심 과제의 해결을 대담하게 주장하고 있는데서이다.

여성들은 그들의 주장을 거리낌 없이 해낸다. 국가간의 미묘한 관계에 저촉되어 있는 평화운동의 절대다수 참가자도 여성들이다. 여성의제21에서 여성들은 '50%의 군비비용 감축을 즉각 실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예산을 사회적으로 유용하게 환경친화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라고 한다. 그들은 구체적인 제안도 내놓지 않는다. 군대는 환경보전 행동대로 자연생태계 복구사업, 전쟁터 또는 군사기지의 정화사업 또는 천재 및 인재로 인한 재난복구사업에 시민과 함께 동원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하지만 강대국들이 꺼리고 있는 빈국의 외채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주장을 유엔, 국가정부 등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노력을 힘쓰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환경인들은 WEDO의 여성의제21에 얼마나 관심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하고 리우+10을 앞두고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IV-5. 국제 NGO 협약과 유엔의제21

'92 NGO 지구포럼에서 별도로 지구헌장과 NGO 의제21인 국제 NGO협약이 제정된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환경운동단체들이 이에 대한 검토나 이행에 대한 논의가 없는 것은 유감이다.

국제 NGO 협약은 46장으로 되어 있으며, 이 작업에는 3,300개의 NGO들이 참여하였고 총 4,000명의 NGO 관계자가 서명한 것이다. 1972년 개최된 스톡홀름 인간과환경회의에 NGO가 참가하는 하였으나 성명서를 발표하지 못했던 것에 비하면 그후 20년간 NGO도 크

게 성장한 것이었다. 최근 모든 세계정상급회의에서의 NGO들의 활동상으로 미루어 2002년도의 요하네스버그에서의 NGO 활동은 어떻게 진전될 것인지 예측불허이다.

개발과 환경분야에 있어서 NGO의 역할을 정부와의 관계에서 보면 두가지 입장이 있다. 하나는 정부정책이 환경악화 문제 등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 그 대안을 제시하는 일과 다른 하나는 정부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게 하는 보완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국제 NGO협약과 유엔의제21의 관계를 그런 관점에서 비추어 보면 정부간의 협의사항인 의제21에 명시되어 있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 즉 정부에 의한 현상분석이나 원인 방책 등이 NGO의 인식과는 다르기 때문에 국제 NGO협약에서는 그것을 수정하여 대안을 제시하거나 또는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 발전의 실현에 있어서의 NGO의 역할은 대체나 보완이라는 이분법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국제NGO협약과 의제21이 각기 독자적인 과제를 가지고 있는 데서도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NGO는 인종차별과 군사주의 문제 등 정부간의 협의과정에서 취급하지 않은 문제들을 국제사회에 환기시키고 있다.

국제 NGO협약만이 관심한 과제들에 대한 그 배경은 대략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① NGO의 기본이념으로서 지구생태환경에 대한 배려와 윤리적 결단이다. NGO의 행동규범은 개발과 환경의 문제를 인간과 자연의 대등한 관계로 보려는 자세를 분명히 하고 있다. ② 인종차별에 대한 조항은 UNCED의 주최국인 브라질의 NGO의 요청으로 NGO지구포럼 즉석에서 채택된 것이다. ③ 자본유출, 전쟁과 군사우선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문제는 NGO들이 의제21의 초안작성시부터 의제에 포함하라는 요구를 정부대표측에서 배제시켰기 때문이다.

반면 의제21에서만 취급된 문제들은 인간의 건강과 보호, 인간주거의 문제, 개발담당자인 지방정부와 노동조합의 역할, 국제적인 기구나 법제도의 문제 등이 이에 해당된다. NGO가 이들 문제를 그들의 의제에서 제외시킨 것은 아마도 ① 의제21 작성과정에서 이미 초안에 포함시키는 것을 동의 또는 의의가 없었기 때문에 (여성과 원주민의 문제는 이미 여성들의 의제21에 포함되었고) ② 배치된 초안작성 실무담당의 해당과제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누락 ③ NGO가 채택한 과제선정 우선순위에서 탈락한 경우가 아닐까 추측한다. (모리 사토코, NGO와 지구환경가버넌스, 1999)

국제NGO 협약과 유엔의제21의 비교에서 전자가 후자의 대안이나 아니면 보완이나 하는 것을 이분법적으로 가려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목표는 같다고 하더라도 제안하고 있는 행동, 방법론, 수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단 대안으로 간주되는 것은 의제21이 현존의 경제 및 무역구조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한해서이다.

여기에서 기존의 경제구조에 대한 NGO와 정부 기구와의 사고의 차이가 단적으로 드러난다. 의제21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가 주장하는 지속가능성은 기존의 제반구조를 정책여건으로 하고 있으며 그 범위에서 실현가능한 환경보호정책을 펴면 환경은 보전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구조여건형 지속가능성>에 대해 NGO는 제구조의 개혁을 중요정책으로 설정하고 구조개혁에 기초한 발전을 지속가능개발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해서 물질적, 정신적 빈곤, 환경파괴, 경제적 격차를 초래하는 기존의 경제구조를 변경하지 않는 한 환경과 자원을 보전하려는 도상국의 국내정책에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NGO는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기존의 약탈적이며 지배적인 경제구조, 즉 국제통화기금(IMF), GATT체제를 대신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비록 구체적인 행동계획은 세우지 못했지만 민중의 참여에 근거한 민주적인 국제무역기구의 설치 등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고 NGO와 정부대표들간의 합일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정부의 현재의 경제구조를 유지하면서 시장원리의 틀 안에서 발전을 지속시킨다는 입장에 대해 NGO는 기존의 시스템을 변혁하여 본질적인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NGO는 사회적 평등과 공정, 생태적 지속가능성, 문화에의 적응, 과학과 자연에 대한 통합적 개발을 지향하고 있다.

V. 여성의 힘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라고도 한다. 시대가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100년의 역사는 갈등과 대결, 지배와 피지배, 경쟁과 소유 그리고 독점의 원리가 주도한 시대로서 인간의 자연착취, 강자의 약자억압, 생명경시 및 물질만능의 왜곡된 세상으로서 파멸을 면키 어려운 상황이었다. 새천년 새세기에는 공생과 자율, 공유의 원리가 주도하는 평등, 평화, 화해의 세상을 꿈꾸게 한다. 인류의 지속가능생존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역사의 방향은 획기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새세기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환경의 세기와 여성의 세기는 여성이 이끌어내야 한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총체적인 위기를 돌파하는 에너지는 지금의 사회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에서 나오는 것이 인류역사의 법칙이라고 전제하면서 어떤이가 말하기를 지금까지 주변부에 있던 여성들이 대안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하는데 동의한다.

내실을 따지기에는 이르지만 최근에 우리나라 정부에는 <여성부>라고 하는 초미니의 막동이 부처가 태어났다. 이어서 모성보호법이니, 여성고위공직채용 의무화제도니 여성의 사회활동을 권장하기 위한 육아시설 확대니 하는 정책들이 줄지어 발표되면서 여성의 시대가 목전에 다가온 듯한 느낌을 가지게 한다. 허상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으나 이러한 흐름을 알차게 이끌어 나가는 책임이 부여된 셈이다.

V-1. 힘이란

‘힘이란 무엇인가?’ 여성이기에 강해진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코니 글레이저(Connie Brown Glaser)와 바바라 스타인버그 스몰리(Barbara Steinberg Smalley)공저인 <당신에게 보다 큰 힘을!- More Power to you!, Women Books '92>에서 보면 힘이란 일을 성취해 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한다. 통상 능력이란 남자의 속성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능력에 성차는 없다. 힘이란 타인을 관리하거나 지배하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하게 하는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힘이란 또한 대립이 아닌 협력을 말하기

도 한다.

주제와 관련한 여성의 힘이란 오늘의 지구환경문제에 있어서 여성이 무엇인가 해낼 수 있는 힘이 있는가 하는 질문이 된다. 일반적으로 환경문제에 관련한 여성성의 힘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 이유는 여성인간군이 지니고 있는 모성성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성성이 오늘의 지구환경을 되살리게 하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운동 이론가들 중에는 생활속의 실천운동으로 강조되고 있는 환경보전운동이 자칫 가정내 성역할을 고정시키는데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는 이들이 있다. 또한 사회주의 이론가 중에는 화폐로 보상되지 않고 있는 환경보전운동을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경제적 불균형과 여성의 빈곤을 부추키는 것으로 비판하는 견해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논쟁은 지구환경문제와 여성문제를 보는 시각과 심각성의 정도에 대한 인식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한 논쟁은 앞으로 계속 될 것으로 별도의 기회가 주어지기를 기대한다.

V-2. WEDO의 힘

실질적으로 여성들에게 희망을 걸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데에는 WEDO의 역할이 컸다고 본다. WEDO는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시각과 접근방법을 남성 또는 강자와는 달리고 있는데서부터 차별화된다.

다국적 기업이 지구환경 훼손의 주역임은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리우선언'이나 '의제21'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의 막강한 경제력과 정치력에 의한 로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WEDO가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최우선과제로서 다국적기업문제를 선정하고 집요하게 문제점을 파헤치고 부당성을 고발하고 있는 것은 차별화의 하나의 좋은 예가 된다.

여성환경인들로 구성이 된 WEDO가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강자들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정면 돌파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생겨지는 것인가? WEDO는 국가체제를 받지 않는 자율적인 민간기구라는데서 힘의 발휘가 가능하다는 것은 다른 NGO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덧붙여서 여성은 가부장제하에서의 약자의 억눌림의 경험에서 터득한 삶의 지혜와 용기(약자에 대한 연민, 생명의 담지자로서의 생명에 대한 강한 경외심 등)를 담지하고 있어서이다. 그 뿐만 아니라 여성은 생명을 중시하는 모성의 원리를 무시한 가부장적 개발이 가져오는 자연환경파괴와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를 제어하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변화의 원동력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들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개념화하는 작업에서 인간의 자연에 대한 지배와 남성의 여성에 대한 지배가 맥을 같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은 여성의 환경과 개발에 대한 인식과 행동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이러한 깨달음은 남쪽(개도국)에서는 개발과정이 빈곤의 심화, 경제적 그리고 성적 불평등의 심화, 환경악화와 그로 인한 빈민층의 생계위협과 생명위협에 직면하게된 사실을 문

제삼계 되었다. 또한 북쪽(선진국)에서는 인간중심주의와 남성중심주의의 대안으로 그리고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사이의 새로운 관계의 패러다임으로서 에코페미니즘을 탄생시켰다.

이 두 흐름의 주장들은 개발위기의식의 산물인 지속가능한 발전 논의를 위한 회의에서 중요한 의제로 자리잡아가기 시작하여 지속가능성의 사회적 측면을 강조하는데 여성의 목소리가 보태지게 되었다.

V-3. 여성과 엠파워먼트

여성에게 '힘을 더한다-empowerment는 것은 발전도상국가에 있는 여성들에 의해 시작된 접근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여성들이 힘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남성이 힘을 잃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자립을 위한 내적인 힘을 더하기 위한 여성들의 능력을 의미한다.

엠파워먼트 접근이란 여성들의 요구를 얻어내기 위한 여성들이 연대하고 협력하며 얻어지는 힘을 의미한다. <신세대를 향한 여성과 함께 하는 발전대안-DAWN, Development Alternatives with Women for a New Era>라는 단체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는 어느 국가 또는 국가간에 계급, 성 그리고 민족의 불평등이 없는 세계를 희망한다. 기본적인 필요가 기본적인 권리가 되며 빈곤을 비롯한 폭력이 없는 세상을 희망한다. 개개인의 가능성과 창조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여성의 육성과 연대를 중시하는 여성의 가치관이 인간관계를 특징짓는 세계를 원한다. (중략) 여성들은 그들의 힘을 결집시킴으로써 이러한 세상을 성취해낼 수 있다고 한다.

여성들이 희망하고 있는 세상이 위로부터 주어지는 정책의 혜택(제도적 장치)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존재로서 남아있는 한 성취되는 것이 아니다. 같은 목적을 가진 여성집단의 지속적이며 일관성 있는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성자신의 엠파워먼트를 결집하는데서 비롯된다.

여성들이 조직을 통해서 힘을 얻는다는 움직임은 <유엔여성 10년>기간동안 급속하게 확산되어 지구규모의 운동으로 발전했다. 그동안에 다양한 여성조직, 운동, 네트워크 또는 동맹들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 및 행동이 이루어졌다. 이들은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지배체제에 저항하고 있는 모든 집단들과 연계를 강화하면서 여성의 세력화를 힘쓰고 있다.

여성과 모든 양심세력들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성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WEDO가 베이징회의 이후 자체평가에서 말하고 있듯이 여성들의 정책결정기구에서의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모범이 되어야 할 유엔기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WEDO가 여성의제21을 유엔의제21에 수용할 것을 요구할 당시 '92지구정상회의의 각 국 대표단의 50%를 여성으로 할 것과 유엔사무국의 실무자의 성균형(정책결정위당 4%에 불가)조정 할 것은 당연한 주장이다.

성평등문제는 시민사회, 지역공동체, 가정에서 새로운 힘의 관계를 창출하는 변혁의 도입점이며 우리가 갈구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을 이루어내는데 필수적인 전제조건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성평등이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견인해내는 계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성평등의 중요성을 보다 강력하게 주장해야 한다고 국제여성기구들은 말하고 있다.

V-4. 우리나라 여성의 현주소

우리나라의 최근 상황은 분위기적으로 고무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제삼는 것은 그 고무적인 요인의 실체가 허상일 수 있다는 데 있다. 유엔의 <인간개발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여성의 권한 척도 (Gender Empowerment Measure-GEM)는 70개국 중 63위이다. 99년은 102개국 중 78위, 98년에는 83위였다. 비율로 보면 우리의 여성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더 낮아졌다.

국민의 교육수준, 국민소득, 평균수명을 기준으로 측정한 <인간개발지수>가 174개국 중 31위인데 비해 여성의 권한척도가 63위 (70개국중)인 것에서 우리나라의 여성차별은 심각하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큰 폭으로 진전되었다고 하는데 역으로 세계의 순위가 해를 거듭할수록 뒤쳐지고 있는 것은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눈부신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에게 부여된 권리의 수준이 그 나라의 실질적인 민주화와 번영과 발전의 척도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그 수준은 아직 멀었다. 어떤 이의 지적대로 우리나라가 이미 오래전에 OECD가입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고 국내총생산으로도 세계 13위 수준 (99년도)의 한국이 인간개발지수와 여성의 권한 척도에서 그렇게 뒤떨어진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는 데 공감한다. 식자들은 창의성과 유연성이 강조되는 21세기 디지털 시대를 맞아 우리 의식속의 편견과 차별의식을 걷어내고 대신 남녀평등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한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정보화시대의 발전속도를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V-5. 여성환경연대

그럼에도 우리에게서 희망이 있다. 외부적인 분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구석구석에서 여성의 필요에 의한 또는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한 크고 작은 다양한 과제를 중심으로 여성들이 실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환경연대 회원들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에게서 힘을 느끼는 것은 우리나라의 총체적인 위기앞에서 '이대로는 안된다.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어 놓고야 말겠다'는 단호한 목표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우리사회에 뿌리깊은 가부장제 문화에 저항하면서 주민자치운동, 생협운동, 녹색지역만들기운동, 환경친화적인 생활운동 등을 주체적으로 펴면서 나름대로 세상바꾸기에 확실하고 수준 높게 기여하고 있다는 자신감에 차있는데서 다른 사람들이 힘을 받게 한다. 이들은 여성환경연대라는 조직을 통해서 홀로가 아니라 뜻을 같이 하는 여럿이 함께 한다는데에서 보다 큰 힘을 도출해 내고 있다. 여성환경인들의 연대가 어느때보다 더 필요한 시기에 우

리는 살고 있다.

VI. 맺는말

지금까지 인간이 추구해온 삶의 내용은 물량적인 것이었다. 21세기의 삶은 쾌적한 환경과 공동체사회를 주축으로 한 질의 문제이다. 세계는 지금 동서냉전의 종식으로 21세기를 향해 역사의 전환점에 서있으며 새로운 인류역사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지구환경보전을 들고 있다.

오늘의 세계의 사회운영체제는 공식영역으로서의 정부, 민간영역으로서의 기업 그리고 제3영역으로서의 시민사회의 3개 영역이 가버넌스(협치)를 잘 이끌어낼 때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우리는 현재 백척간두에 선 경제, 정치, 사회, 교육, 환경문제 등으로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오늘의 위기상황 극복은 물론 지속가능한 사회건설을 정부와 경제계에게만 내맡길 수 없는 처지에 있다고들 하고 있다. 오늘처럼 시민사회의 참여의 필요성이 높은 때는 없었다. 가장 중요한 행위주체이며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에 확실한 대안이라고 기대를 모으고 있는 시민사회의 일원인 여성들의 활약이 주목된다.

여성은 지구시민의 일원으로서 환경파괴에 대한 가해자이고, 피해자이며 감시자이고 관리자이다. 21세기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여성의 힘은 말로만이 아닌 실천으로 표출되어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에 기여해야 한다.